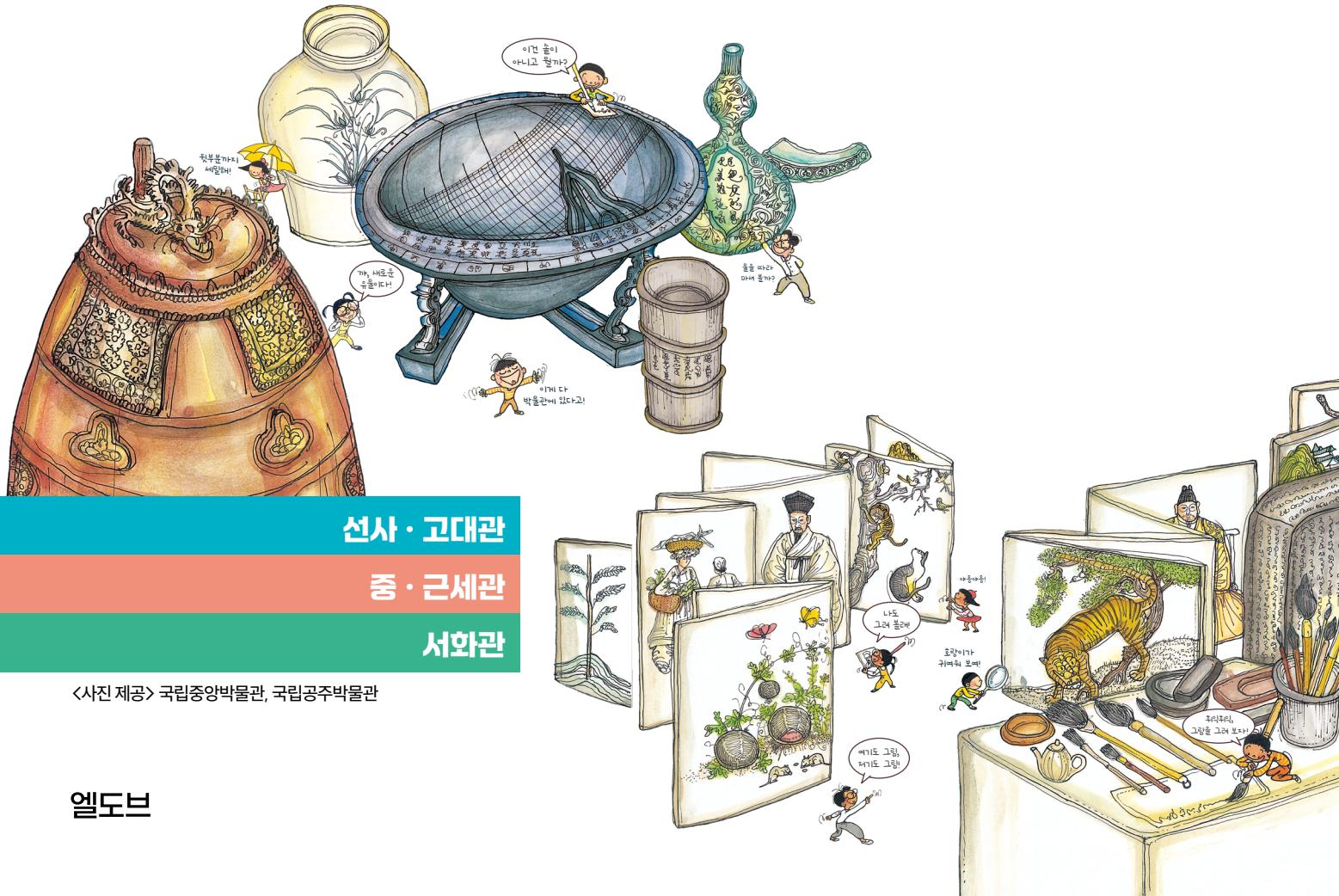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체험학습자-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서화관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엘도브

1. 빗살무늬토기



1. 나의 이름은?

나는 빗살무늬토기야. 역사책에 자주 나와. 나를 본 적 있지?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나는 신석기 시대에 살았어. 나의 고향은 서울의 암사동 선사 유적 이야.
이곳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지.

3. 이게 궁금해!

- 무늬는 어떤 의미로 새겼을까?
- 왜 바닥이 뾰족한 걸까?
- 안에 무엇을 담았을까?

4. 나를 잘 보려면?

- 어떤 무늬가 새겨졌는지 찬찬히 살펴봐.
- 본 것을 그리거나 기록해 봐.
- 어떻게 만들었을지 상상해 봐.

5. 한마디로 나는?

- 신석기 시대의 스타!



도토리나 곡식 같은 먹을거리를 담았을 거야.
이 시대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먹을거리가 늘어났거든.

이 무늬는 식물 바구니의 무늬를 본떴다는 의견도 있고,
태양이나 물을 상징한다는 의견도 있고,
구울 때 단단해지라고 그렸다는 의견도 있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빛살무늬토기는 흙으로 빚고 불에 구워 만들었어.
획기적인 발명품이지.

흙에 끓어놓고 쓰기 편리하도록 바닥이 뾰족한 거야.

전시된 모습



2. 농경문 청동기



1. 나의 이름은?

나는 농경문 청동기야. 어때? 실제로 보니까 정말 작지? 하지만 작다고 실망 하긴 일러. 내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나는 청동기 시대 끝 무렵에 살았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지.

3. 이게 궁금해!

- 새겨져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
- 깨진 부분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4. 나를 잘 보려면?

- 내 앞에서 잠시 서 있어야 그림이 보여.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가면 안 돼.
- 오른쪽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봐.
- 앞쪽 뒤쪽 모두 봐야 해. 양쪽에 그림이 있거든.
-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복제품을 활용해 봐.



5. 한마디로 나는?

- 청동기 시대의 인생네컷!

수확한 곡식을 항아리에 넣고 있어.
이 곡식으로 신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

파비로 밭을 갈고 있어.
옷을 벗고 봄에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를 하는 거야.



(깨진 부분) 농작물을 수확하는
장면이 있었을 거야.

괭이로 땅을 일구고 있어.
농사를 지을 땐 때를
놓치면 안 돼.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야.



구멍이 닳은 걸 보면 구멍에 끈을 넣어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제사장이 나를 목걸이처럼 걸고 의례를 치렀을 거야.

전시된 모습



3. 연가칠년에 만든 부처



1. 나의 이름은?

연가칠년에 만든 부처야. '연가칠년'은 연대를 기록하는 방법이야.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나는 539년에 태어났어. 경상남도에 발견되었지만, 고향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야.

3. 이게 궁금해!

- 부처님이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렸어. 무슨 뜻일까?
- 뒷면의 글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 신라 땅에서 발견되었는데 왜 고구려 불상이라고 하는 걸까?

4. 나를 잘 보려면?

- 아래에서 올려 보고, 정면에서 봐 봐. 그러면 얼굴이 달라 보이거든.
- 불꽃무늬를 봐.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 뒤로 돌아가 글자를 읽어 봐. 오른쪽부터 읽고,
위쪽에서 아래로 읽어.



5. 한마디로 나는?

- 반짝반짝 꿈틀꿈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

잘생긴 청년 같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와
네 소원을 말해 보라는 신호야.

良樂國麗(句)高未己在歲年七嘉延
人共徒冊師演僧子第敬主寺東
義現因十九第布流佛千劫賢造
養所供穎法比丘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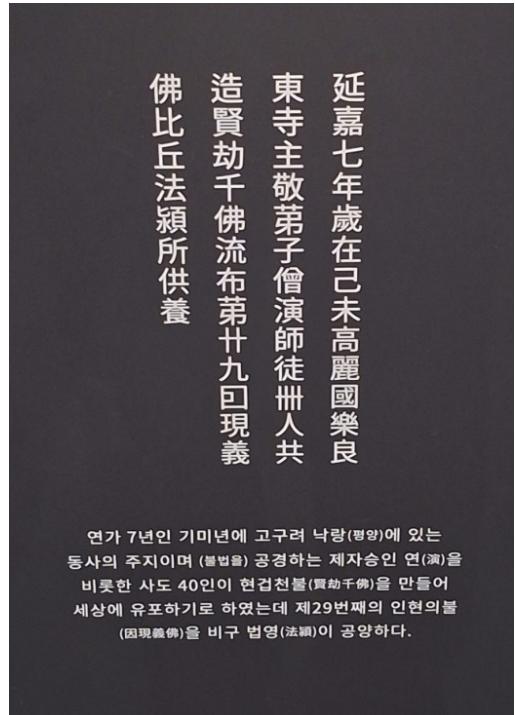
연가칠년은 나를 만든 연도로 539년이야.

고려국 낙랑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말하는 거야.



‘연기칠년에 만든 부처’는 박물관에서 지은 유물
이름이고, 내 정식 이름은 ‘인현의불’이야.

전시된 모습



4. 무령왕비 관 꾸미개



1. 나의 이름은?

- 무령왕의 부인인 왕비의 관 꾸미개야. 볼수록 아름다워.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 나는 백제 출신이야. 왕비는 526년에 세상을 떠났고, 529년에 왕이 잠든 무덤에 들어갔어. 왕비의 남편은 백제를 중흥시킨 무령왕이야.

3. 이게 궁금해!

- 어떤 무늬가 있을까?
- 누가 어떻게 사용했을까?
-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

4. 나를 잘 보려면?

- 무늬가 복잡해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먼저 가운데에서 꽃병을 찾은 후 그 위에 핀 연꽃을 찾아 봐.
- 왕비가 이 꾸미개로 머리를 장식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봐.
- 인터넷으로 '왕의 관 꾸미개'를 찾아봐.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같거나 다른 점을 찾아봐.



5. 한마디로 나는?

- 무덤에 핀 황금꽃.

왕비가 이걸로 머리에 쓰는 관을 장식했어.
왕의 것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되었어.



꽃병에 시원하고 활달한
연꽃이 피어났어.

금판을 뚫어 만들었어.

전시된 모습



5.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1. 나의 이름은?

-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야. 내가 워낙 유명해서 연예인 보는 기분일걸?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 나는 신라 출신이야. 6세기 후반 진흥왕이 한강 하류를 장악한 기념으로 나를 세웠어.

3. 이게 궁금해!

- '순수'란 무슨 뜻일까? 진흥왕이 그렇게 순수했던 걸까?
-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 왜 사람들이 오르기 힘든 산꼭대기(비봉)에 세웠을까?

4. 나를 잘 보려면?

- 비석 앞면 오른쪽 첫 번째 줄에서 한자를 찾아봐. 비석 앞에 한자 안내판이 있어.
- 옆면과 뒷면도 꼼꼼하게 봐.
- 전시실에 있는 비봉 사진에서 원래 비석이 있던 자리를 찾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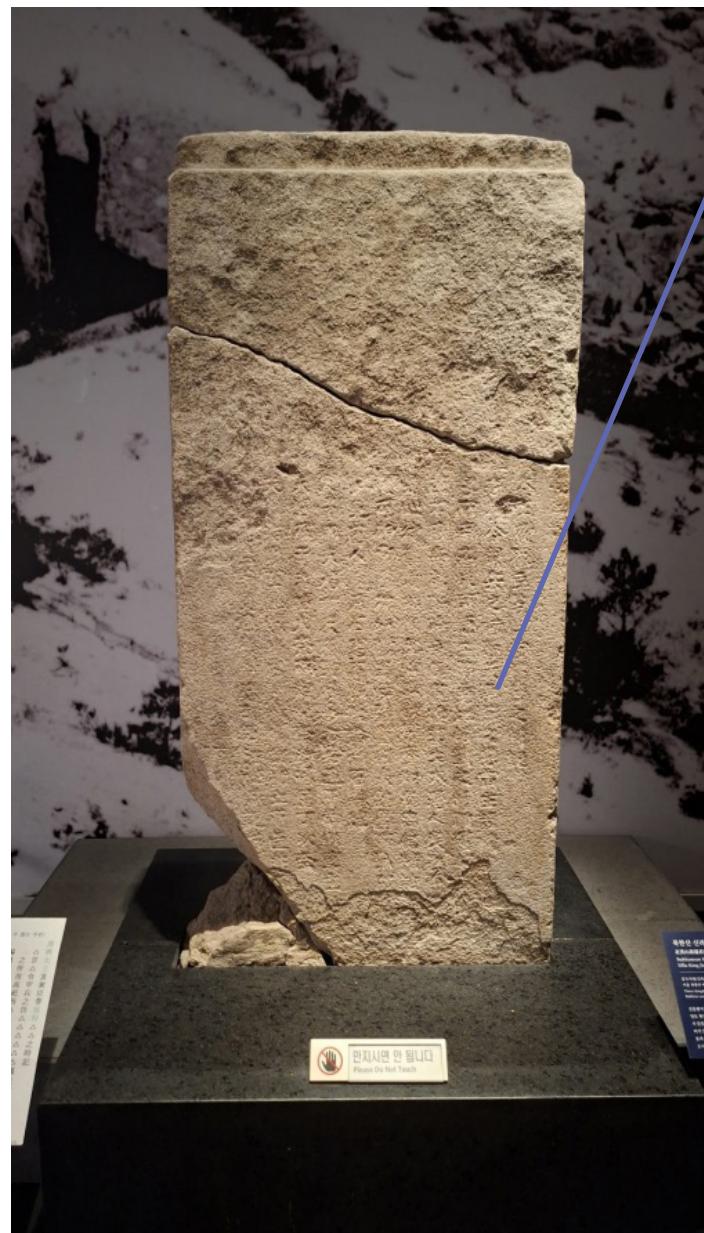


5. 한마디로 나는?

- 이제, 신라는 강국이라는 증거!

'순수'는 왕이 직접 그 땅을
갔다는 걸 말해.

신라 진흥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 지역
(새로 신라의 영토가 된 한강 하류 지역)을
왔다고 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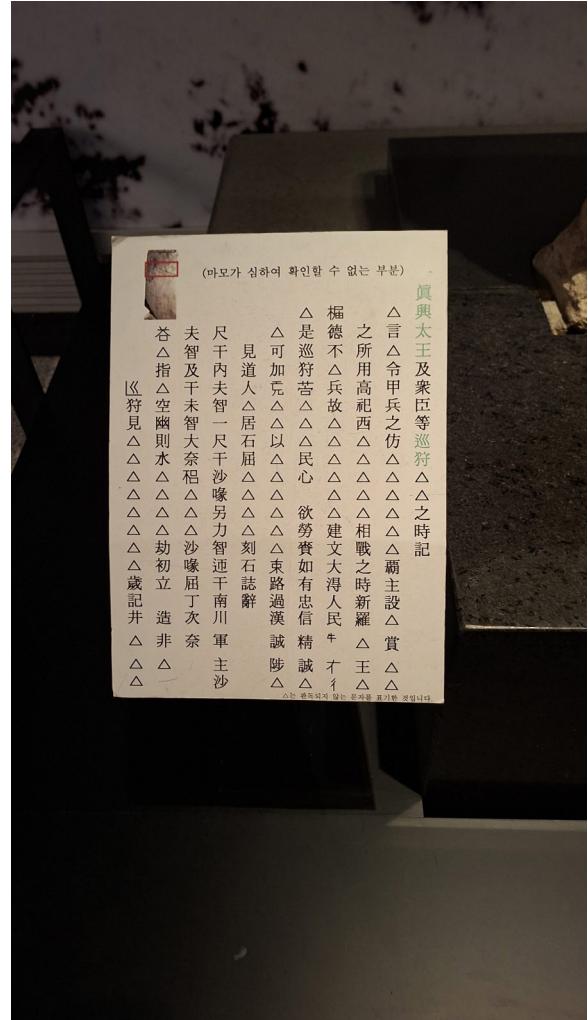
원래 북한산 비봉에 있었는데 더 손상될까 봐
박물관으로 옮겼어. 그곳에는 복제비가 있어.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가
이 비석이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걸
확인했다고 썼어.

한국전쟁 때
총알을 맞은 자국이야.



전시된 모습



6. 경천사 십층석탑



1. 나의 이름은?

- 경천사 십층석탑이야. 탑은 부처님의 무덤을 뜻해.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 나는 고려 출신이야. 1348년 원나라에서 출세한 고려 사람이 고려의 수도 개경 근처의 절인 경천사에 나를 세웠어.

3. 이게 궁금해!

- 몇 층일까?
- 왜 이렇게 화려하고 복잡한 걸까?
- 탑은 대부분 야외에 있는데 왜 나는 실내에 있을까?

4. 나를 잘 보려면?

- 탑 앞에 멈춰서서 일단 한 부분을 집중해서 봐. 그럼 그림이 잘 보일 거야.
- 돌아가면서 보고 박물관 2층에서도, 3층에서도 봐봐. 보는 장소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 탑 주위의 영상에서 탑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꼭 보도록 해.



5. 한마디로 나는?

- 국립중앙박물관의 핫 스폷. 고려인은 블록쌓기의 달인!

이 탑은 복잡하고 화려해. 원나라
스타일(3층까지)과 고려 스타일
(4층부터 10층까지)이 합쳐졌어.

탑은 모두 142개 조각을
맞춰 세웠어.

1907년
제자리를 떠난 후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
많이 손상되었어.



여기가 탑의 받침이야.
이 위부터 해아려
모두 10층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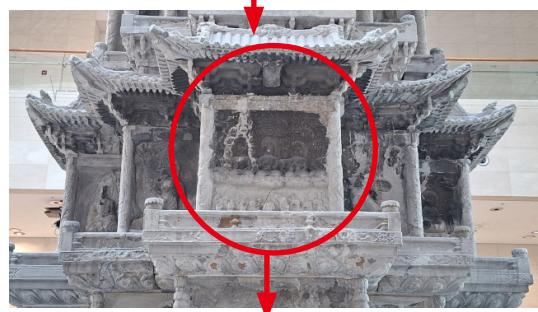
복제품이 아니라 진짜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실내에 전시했어.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이 돌은 약하고 환경 오염에 민감하거든.



1층 남쪽 면



글씨



전시된 모습



7. 청동부절



1. 나의 이름은?

- 청동부절이야. '부절'은 반쪽으로 나누어 서로 맞춰볼 수 있도록 만든 신분증을 뜻해.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 나는 발해에서 살았어. 발해는 고구려 계통 사람들과 다른 민족이 함께 나라를 운영했지.

3. 이게 궁금해!

- 무엇에 사용한 걸까?
- 누가 갖고 있었던 걸까?
- 진짜일까, 복제품일까? 발해실에 복제품이 많은 이유는 뭘까?

4. 나를 잘 보려면?

- 물고기에 새긴 한자를 읽어 봐.
- 왕이 사신에게 나를 주며 어떤 명령을 내렸을지 상상해 봐.
- 왜 지금의 러시아 땅에서 발견되었는지 생각해 봐.



5. 한마디로 나는?

- 발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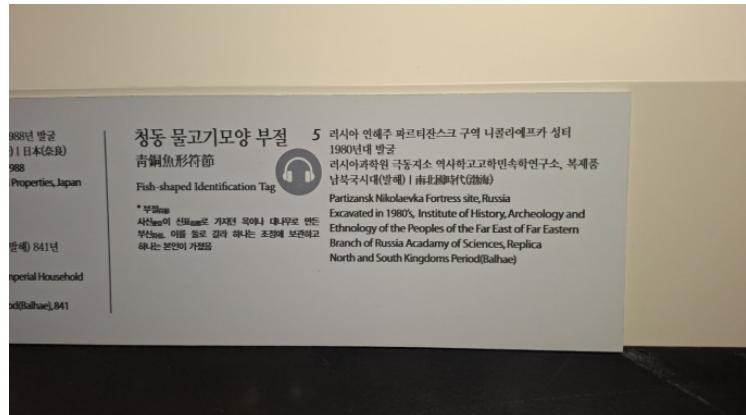
발해의 왕이 지방의 장군에 준 청동 물고기의 반쪽이야.
왕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 지방으로 사신을 보낼 때
나머지 반쪽을 줘 왕이 보낸 사람이란 걸 증명해.



이 유물은 복제품이야.
원본은 러시아에 있어.
발해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걸쳐 있었어.
이 유물은 복제품이야.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은
좌효위장군(左驍衛將軍)이었던
'섭리계(聶利計)'라는 사람이야.
그는 말갈 계통의 장수지.

전시된 모습



8. 양부일구



1. 나의 이름은?

- 양부일구야. 이름이 독특하지? '하늘을 우러러보는 솔처럼 생긴 해시계'라는 뜻이야.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 나의 조상은 조선 세종 때 처음 태어났어. 나는 1713년 이후에 만들어졌지.

3. 이게 궁금해!

- 가로선과 세로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 양부일구에는 왜 절기까지 표시되었을까?
- 134년 세종은 왜 첫 양부일구를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한양의 혜정교 (지금의 광화문 우체국 근처)와 종묘 앞에 설치했을까?

4. 나를 잘 보려면?

- 안쪽의 시간선 중에서 가장 가운데 선을 찾아봐. 이 선이 정오(낮 12시)를 알려줘.
- 정오선을 기준으로 시간을 살펴봐.
- 절기선(가로로 그어진 선) 끝에서 절기를 확인해 봐.



5. 한마디로 나는?

- 시계이자 달력!

솥처럼 생겼어.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내.
절기선 끝에 절기가 표시되었어.

해 그림자를 만드는 영침이야.
이 비늘은 북극성 방향을 가리켜.



세로선은 시간을 나타내.
한 칸이 15분이지.

바닥의 구멍은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지라고 뚫은 거야.

전시된 모습



양부일구
Hemispherical Sundial

백성이 함께 사용하는 해시계

1434년(세종 16) 10월, 해시계 양부일구 仰釜日晷를 백성이 많이 다니는 한양 종로의 혜정교政橋(현 광화문 우체국 부근)과 종묘의 남쪽 거리에 설치하여 누구나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목한 솔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양부일구라고 합니다. 솔 안에 있는 뾰족한 영침의 그림자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원 내부의 가로선과 세로선에 놓이게 되는데 이 위치로 절기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원 내부 가로선은 24절기, 세로선은 시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양부일구의 원리

여름에서 겨울이 되면서 그림자 길이는 점점 길어져 A → B → C로 움직입니다.

9. 대동여지도



1. 나의 이름은?

- 대동여지도야. 22권의 책으로 이뤄졌고, 모두 펼치면 가로 3.8미터, 세로 6.7미터야.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 나를 찍어낸 목판은 1861년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1861년 이후에 태어난 거지. 나를 만든 사람은 김정호야.

3. 이게 궁금해!

- 어디를 나타낸 지도일까?
- 거미줄 같은 선은 무엇이고 왜 선마다 마디를 찍었을까?
- 왜 여러 세트가 전해질까?

4. 나를 잘 보려면?

- 멀리서 지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 봐. 국토가 힘차게 꿈틀거릴 거야.
- 가까이 가서 한 지역을 정해 꼼꼼하게 살펴봐. 길과 강과 마을이 보일 거야.
- 지도 옆에 놓인 검은 나무판도 놓치지 마. 대동여지도를 찍은 목판이야.

5. 한마디로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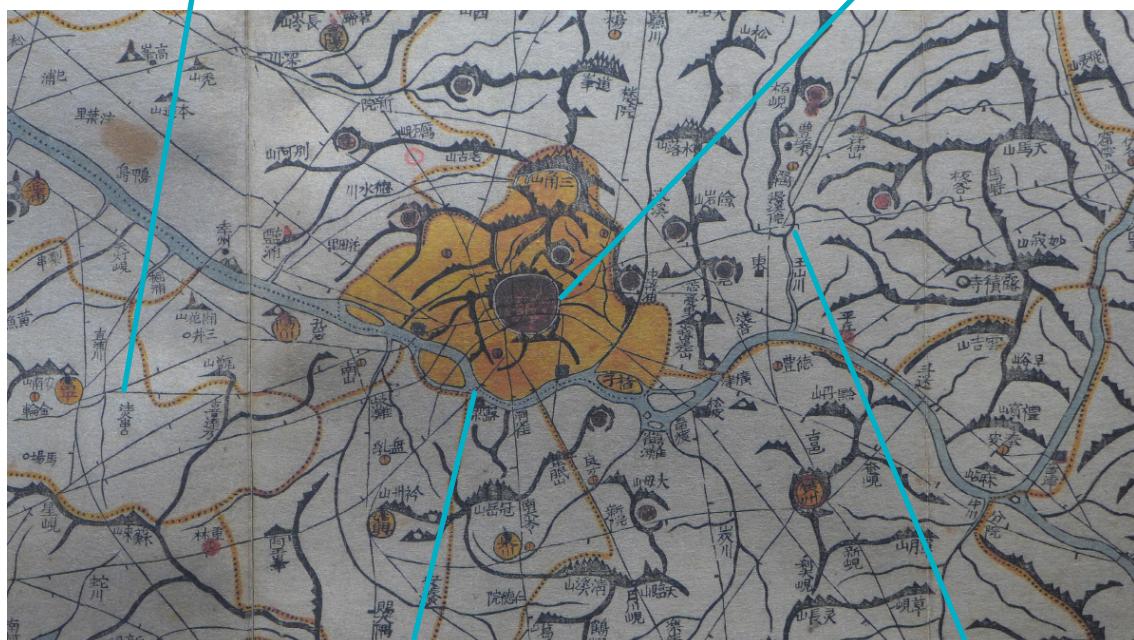
- 조선의 네비게이션!



거미줄 같은 건 길이야.

길에는 걸어서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점이 찍혔어.

여기는 조선의 수도
한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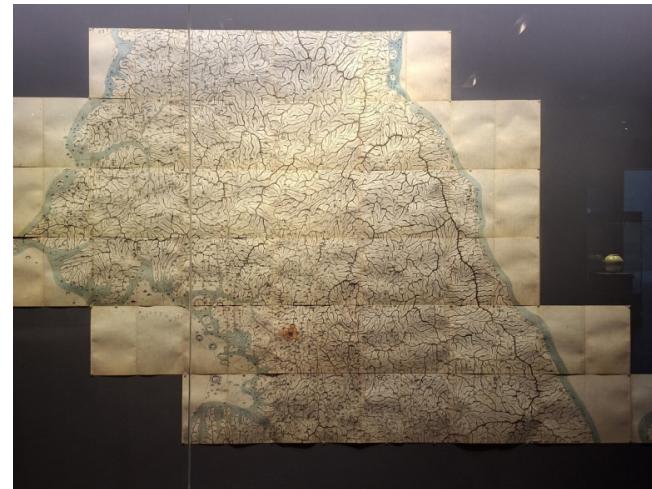
한양 아래로
한강이 흘러.

물길(강)이 한 줄로 표시된 곳부터는
배가 갈 수 없어.



목판을 활용해 많이 인쇄했어.

전시된 모습



이미지 자료



10. 금동반가사유상



1. 나의 이름은?

- 금동반가사유상이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하지.

2. 나는 언제 살았을까?

- 왼쪽에 있는 상(관이 복잡한 상)은 6세기 후반, 오른쪽에 있는 상(관이 단순한 상)은 7세기 전반에 태어났어. 삼국시대지.

3. 이게 궁금해!

- '반가사유상'은 무슨 뜻일까?
- 왜 미소를 짓고 있을까?
- 오른쪽 상의 뒷머리에 튀어나온 건 뭘까?
- 관람객이 모두 나간 뒤 두 반가사유상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4. 나를 잘 보려면?

- 천천히 다가가며 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 봐.
- 낮은 자세로도 보고, 서서도 보고, 돌면서도 봐 봐.
뒤에서는 잠시 멈춰 뒷모습을 봐.
- 두 상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견줘서 살펴봐.
- 미소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를 찾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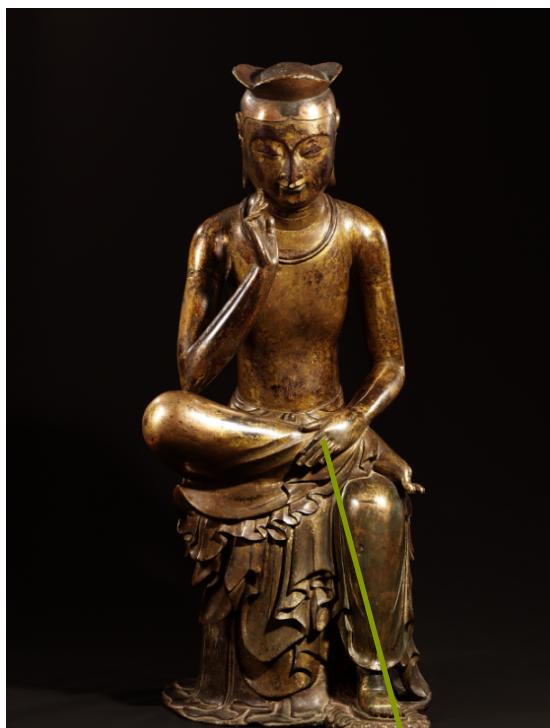
5. 한마디로 나는?

- 프랑스엔 모나리자, 한국엔 반가사유상!

금동반가사유상 두 점이 놓인 전시실이
'사유의 방'이야.



뒷머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건
빛을 상징하는 광배라는 걸 꽂았던 꽃이야.
광배는 사라지고 꽃이만 남아 좀 이상하게 보여.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흘러.
미소를 보는 사람도 같이 미소를 짓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리고(반가)
오른손의 손가락을 뺨에 대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사유).

전시된 모습

